PRESS RELEASE **배포일자: 20.12.08**

이오플로우, 국내 최초 제2형 당뇨인 대상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임상시험 돌입

▶ '2020년도 제3차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' 중 의료기기 임상시험 지원 사업 최종 선정
▶ 제2형 당뇨병에도 효과 입증해 당뇨 치료 시장의 패러다임을 선도할 것

[2020-12-08] 이오플로우(294090, 대표이사 김재진)는 국내 최초 인슐린 의존형 제2형 당뇨인을 대상으로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다기관 임상시험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.

이오플로우는 '2020년도 제3차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' 중 의료기기 임상시험 지원 사업에 선정되며 국내 최초 제2형 당뇨인들을 대상으로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(제품명 이오패치; EOPatch)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하는 다기관 임상시험에 나선다.

이번 다기관 임상시험은 인슐린 다회요법/다회 혼합형 인슐린요법으로도 혈당 조절이 원활치 않은 제2형 당뇨인 130명을 대상으로 한다. 회사는 연속혈당측정기를 병용한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의 효용성을 일반형 인슐린 펌프 및 인슐린 다회요법/다회 혼합형 인슐린요법과 비교 검증하여 새로운 당뇨병 치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한다.

회사는 이번 의료기기 임상시험 지원 사업 선정으로 제2형 당뇨인 대상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임상 사업비 약 11억 원 중, 최대 10억 원을 정부로부터 2022년까지 3차년도에 걸쳐 지원받는다. 다기관 임상시험에는 삼성의료재단 강북삼성병원,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, 한림대학교 평촌성심병원,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이 참여한다.

김재진 대표이사는 "현재 인슐린 주입이 필요한 유병기간이 장기화된 제2형 당뇨인의 수는 제1형 당뇨인의 약 10배에 달한다"며 "최근 제1형 당뇨인 대상 인슐린 펌프의 성공적인 임상시험에 이어 제2형 당뇨까지 진입함으로써 당뇨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끄는 이오플로우가 될 것"이라고 전했다.

한편, 회사는 제1형 당뇨인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이오패치의 임상시험 결과 기존 인슐린 주입요법과 비교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했다고 지난 3일 밝힌 바 있다.